

K-기업, 멕시코發 고율관세 ‘비상’ 車·가전 등 수출전략 수정 불가피

멕시코 정부, 최대 50% 부과 방침
500여개 한국계 기업 수출 파장
“팔아도 적자 되는 상황이 올수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고율 관세 부과 위기를 일단 넘겼지만 멕시코 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에 수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와 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핵심 생산 기지이다. 미국의 관세 대응에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관세 소식에 대응책 마련이 복잡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현행 0~35%의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한국

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만큼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다.

현재 미국 수출 물량 대응을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500여개 한국계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업체들의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 자동차 부품은 2022년 기준 대멕시코 수출 1위 품목(18억 2000만 달러, 약 2조 5000억원)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 멕시코에 연산 40만대 규모의 기아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멕시코로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아 역시 부담이 크다. 북미와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물량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는 멕시코 정부의 고율 관세 부담이 확대될 경우 제품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 LG전자는 레이노사와 몬테레이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양사 모두 가전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과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는 만큼 비용 상승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멕시코의 고율관세 정책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고율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나오고 있다”며 “제품을 팔아도 적자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 수출 기지의 현지화 전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 외관 모습.

3.7초 제로백·안전 풀패키지… CC 한계 극복 (크로스컨트리)

자동차 시승기 볼보 EX30CC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
플래그십 모델 수준 안전기술 적용

볼보가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을 전기차 시대에 맞춰 새롭게 해석한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높아진 지상고와 사륜구동(AWD) 시스템, 듀얼모터 파워트레인이 결합해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북유럽식 미니멀 디자인과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실내는 소형 SUV의 한계를 넘어선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남양주까지 약 140km를 달린 시승 코스에서 EX30CC는 첫인상부터 단단함이 느껴졌다.

전면 블랙 실드 패널에는 스웨덴 케브네카이세 산맥 지형도가 새겨져 크로스컨트리의 상징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고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와 전용 블랙 휠 아치, 19인치 매트 블랙 휠은 SUV 특유의 강인함을 완성했다. 작은 차체임에도 강력한 존재감을 풍기는 이유다.

실내는 북유럽식 라운지를 연상하게 했다. 대시보드는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 수평선을 강조하며 개방감을 확보했고 센터 콘솔은 앞뒤로 이동 가능해 수납 유연성을 확보했으며 대형 수납함과 도어 패널 공간 활용은 실용성을 높였다. 단순히 ‘작은 SUV’가 아니라 여유로운 생활 공간으로 체감됐다. 특히 리사이클 소재를 곳곳에 배치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었고, 직관적인 UI를 갖춘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만하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기존 후륜구동 기반 200kW 모터에 115kW 전륜 모터를 더한 듀얼모터 시스템으로 총 출력 315kW(428마력), 최대토크 55.4kg·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7초면 도달하는 가속력은 볼보 역사상 최단 기록이다. 포르쉐 타이칸 GTS에 맞먹는 성능임에도 주행 감각은 날카롭지 않고 매끄럽다.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적고 방향 전환 시 즉각적으로 자세를 회복해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준다.

지상고는 기존 EX30 대비 19mm 높아졌다. 전용 컴포트 새시가 12mm, 두꺼워진 타이어가 7mm를 더하면서 완성됐다. 다양한 노면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크로스컨트리 전용 새시와 조합돼 도심과 교외, 고속도로 모두에서 일관된 승차감을 제공한다. 짧은 시승 구간이었음에도 노면 충격이 잘 걸러지고, 차체의 균형감이 유지된다는 점은 전동화 SUV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강점으로 다가온다.

운전자 보조 기능도 강화됐다. 원페달 주행은 끄기·저·고 세 단계로 조정 가능해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전진 크립 모드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감각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볼보의 안전 철학은 이번에도 견고했다. 운전대 상단에 IR 센서가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해 졸음이나 주의 산만을 즉각 경고하고 문 열림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와 자전거 접근 시 사고를 예방한다. 5개 레이더, 5개 카메라, 12개 초음파 센서가 결합된 첨단 안전 시스템은 차세대 파일럿 어시스트, 사각지대 경보 및 조향 어시스트, 도로 이탈 방지, 후방 교차 경고, 자동 주차 보조까지 지원한다. 안전 기술 전반이 플래그십 모델 수준으로 적용됐다.

실내 편의성 또한 충실하다. 글라스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하단카톤 사운드바는 실내 전역에 고른 음향을 전달했다. 다양한 수납공간은 일상적 활용성을 높였고, 2열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글라스루프 덕분에 개방감으로 보완됐다. 여기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필터 시스템도 탑재돼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충전 효율도 안정적이다. 복합 주행 가능거리는 329km이며 급속 충전 시 10~80%까지 약 2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감안하면 도심 출퇴근과 주말 교외 여행까지 무리 없는 수준이다.

국내 판매 가격은 5516만 원으로 책정됐다. 스웨덴(8991만 원), 독일(9295만 원), 영국(8520만 원) 등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최대 3500만 원 가까이 저렴하다. 여기에 5년/10만km 일반 부품 보증, 8년/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 15년 OTA 무상 업데이트, 5년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까지 제공돼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시승에서 만난 EX30CC는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새롭게 해석된 북유럽식 모험의 정수를 담은 프리미엄 전기 SUV였다.



볼보 EX30CC 실내 모습.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lsy2665@

근로자 복귀까지 최소 한 달… 경영손실 눈덩이

조지아사태 후폭풍

대규모 구금으로 공정 전반 공백
“고정비 상승 등 연쇄적 피해 예상”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하며 관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문인력 수급과 공장 건설 및 가동 일정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인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 투입까지 최소 6개월, 숙련공 양성에는 5~6년이 걸려 업계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공장건설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합작 공장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로 300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공정 전반의 공백을 메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사태로 300여 명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 중인데 대체 인력을 미국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며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 /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은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 인력을 재투입해 전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귀국한 직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기까지도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미국인 훈련 후 투입’ 방안도 즉시 투입이 필요한 공장 건설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관 조공 보조하는 근로자 교육에도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배터리나 반도체는 설비 유지나 장비 설치할 줄 아는 인력 자체가 미국

에 없고, 현장에 필수인 숙련공은 최소 5~6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데 언제 가르쳐서 언제 투입하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작회사의 가동지연에 따른 경영손실도 상당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와 고정비 부담이 늘어나고 매출 감소, 보조금 축소 등 연쇄적 피해가 예상돼 전반적 재무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미국 B1 비자 해석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B1 비자는 미국 정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미국 현장에서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 현장 근로자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업무도 가능하다.

정부는 미 당국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신설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20개사 3억 자금·50억 보증
“벤처천억기업 성장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대상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트랙은 투자 유치 이익이 없는 기업 중 업력 4~10년 이하, 매출액 20

억~600억원 이하 벤처기업을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최대 3억원의 경쟁력강화 자금과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43개사가 신청해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개사 평균 업력은 6.7년, 평균매출액은 327억원(작

년 말 기준),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는 55.5%로 나타났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외부 투자유치 없이 자체적인 매출과 수익을 통해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들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